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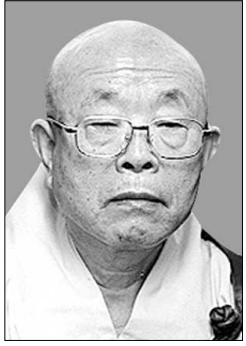
“정병 건드리지 말고 물만 가져오너라”

법전 스님

(조계종 종정·해인총림 방장)

〔전략〕남전 선사는 등은봉 스님이 참문하러 오는 것을 보고는 정병(淨瓶)을 가리키면서 말했습니다. “정병은 경계이다. 그대는 경계를 건드리지 말고 물을 가져오너라.” 이에 등은봉이 정병을 가져다가 선사의 앞에서 쏟으니 선사가 벽력같이 말했습니다. “그만 뒤.” 이에 귀중 선사사가 말했습니다. “등은봉도 또한 함부로 쏟은 것이니라.”

등은봉 스님께서는 해제를 하고서 남전 선사를 찾아갔습니다. 정병은 남자들이 길을 다닐 때 물을 넣어 다니는 병입니다. 마치기도 하고 또 뒷물을 하는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 정병의 물을 두고서 남전 선사와 등은봉 스님이 한 거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등은봉 선사는 거꾸로 서서 열반에 든 종문(宗門)의 대종장(大衆)입니다. 해제를 하고서 만행을 다니며 가는 곳마다 선지식과 환관을 거두고는 사라지곤 했습니다. 등은봉 스님은 만행을 하면서 말없는 가운데 우레소리를 내기도 하고 먹살잡기도 하고 때로는 미끄러운 길에서 헤매기도 하면서 길을 다녔습니다. 해제를 하고서도 많은 선지식을 참방하면서 법을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남전 선사에게 정병으로 인하여



한소리를 얻어 듣고는 자기의 공부 경계를 내보였으나 결국 제대로 된 안목을 인정받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드라고 하는 것은 너무 급하게 서둘러도 이루지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느슨하게 한다면 이 역시 공부를 이루지 못합니다. 이미 피리 불기에 능숙하다면 박수 치는 것에도 능해야 합니다. 만일 박수치는 것에 능하지 못하다면 피리를 부는 이가 헛수고를 하게 될 것입니다.

해제대중들에게 물었습니다. 남전 선사가 “정병은 경계이다. 그대는 경계를 건드리지 말고 물을 가져오너라”고 하니 등은봉 스님은 정병을 가져다가 선사의 앞에서 쏟아버렸는데 이를 ‘함부로 쏟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등은봉 선사 가 함부로 쏟은 것이라고 했겠습니까? 한결같은 정진 끝에 알아차리지 못한 대중이 있다면 해제가 곧 결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후략)

각 총림

해제법어 (요약)

지난해 11월 8일 결제에 들어간 계미년 동안거가 2월 5일 각 선원의 해제법회를 끝으로 일제히 회향했다. 이번 동안거에는 해인총림 해인사를 비롯해 영축총림 통도사, 조계총림 송광사, 고불총림 백양사, 덕숭총림 수덕사 등 조계종 5대 총림과 태고종 태고총림 선암사를 비롯해 전국 100여개 선원에서 2천3백여 명의 스님이 결제에 들었다. <편집자 주>

“망상의 근원 아는 것이 청정의 근원”

원담 스님

(덕숭총림 수덕사 방장)

〔전략〕대중들은 일러보라. 어찌하여 문수 보살은 선정(禪定)을 깨우지 못하였고, 어찌하여 망명보살(罔明菩薩)은 선정에서 나올 수 있게 하였는고? 모른다면 귀뿔에 주리라.

문수는 큰 지혜에 걸려 넘어지고 망명은 한 가닥 망상(妄想)은 있으나 망상에서 마음을 깨우기는 쉬웠다 하리라. (종략) 대중들은 들어라, 지혜로써 망상을 버리



는 것이 옳겠는가! 망상을 망상으로 버리는 것이 옳겠는가! 지혜가 곧 망상이요, 망상이 곧 지혜이니라. 만일 망상의 근원(根源)을 알면 망상에 쉬어서 위로는 부처를 구할 것 없고 아래로는 악(惡)을 겁낼 것 없으며, 중간에는 생과 사를 두려워 할 것이 없으니 그것이 청정(淸淨)의 근원이며 천진(天真)한 묘도(妙道)이니라. (후략)

“귀는 귀가 아니요 눈 역시 눈 아니다”

초우 스님

(영축총림 통도사 부방장)

〔전략〕자, 그건 그렇다치고 일문 말해보라. 소리가 귀에 오는가, 귀가 소리에 가는가? 비록 메아리와 고요함을 둘 다 있을지라도 이에 이르러 어떻게 얘기할꼬! 만약 귀로 듣는다면 알기 어려울 것이고 눈으로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비로소 친할 것이로다.

사회대중(叢會大衆)은 들으시오. 오늘 동안거 해제를 맞아 이르노니, 과거 운문 스

님은 ‘중소리가 나는데 왜 절조가사를 읽느냐?’고 대중에게 물었습니다. 답이 무엇인가? 여러분은 이 소리마저 안광(眼光)으로 들어가지 않으리라 말하면 그르칩니다. 입술을 떼는 순간 선정(禪定)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비록 말을 내세우지 않더라도 선가에서는 아무리 복잡한 암호구조도 한방에 풀어냅니다. 이것이 ‘문성오도(聞聲悟道)’, ‘견색명심(見色明心)’입니다. (종략)

눈으로 듣고 귀로 보는 일은 천하에 있을 수 없는 일이나 귀란 원래의 귀가 아니요, 눈이라 역시 본래의 눈이 아님을 꿰뚫어 통찰해야 합니다. (후략)

“꿈속 시끄럽다가 깨나면 고요하다”

보성 스님

(조계총림 송광사 방장)

대지변성은색계(大地變成銀色界) 혼신주재수정궁(渾身住在水精宮) 수능구작화서동(誰能久作華胥夢) 풍감랑간일이중(風撼琅玕日已中)

대지가 온통 은세계로 변했나니 운몽이 수정으로 된 궁전에 머물러 있다. 누가 능히 화서의 꿈을 꾸었나. 바람은 낭간을 흔들고 해는 한낮이 됐다.



“많은 노력은 필요 없고, 다만 잡다지 말라. 자지 않으면 꿈이 없고 꿈이 없으면 일이 없을 것이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꿈속에서는 매우 시끄럽다가 깨고 나면 고요히 일이 없다”고 하였다.

“조사관 타파때까지 정진, 또 정진”

지허 스님

(태고총림 선암사 칠전선원장)

〔전략〕이 주장자라는 물결은 참으로 신기하기 그지없는 물건입니다. (종략) 쓸 줄 알면 제불조사와 천하성현이 모두 이 주장자에서 나왔고 아승지경과 일월성인과 천지미물까지도 모두 이 주장자가 창조하였습니다. 쓸 줄 모르면 안으로 아상(我相)을 기르고 밖으로 탐진치의 독을 번지게 하여 삼악도로 속행하는 비수와 같습니다. (종략)



오늘의 해제대중도 삼종결계 동안 두문불출하고 선방에 들어앉아 생사를 걸어두고 참선하였지요? (종략) 향상이 어떠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확연한 조사관의 타파가 있을 때까지 해제, 결제에 구애 말고 정진 또 정진하십시오. 우리의 진정한 (종략)해제는 확실히 대의 그 날이 해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후략)



3개월의 재충전을 위해 태백선원을 나서는 한 스승.

본래 자기 찾기에는 입제와 해제가 따로 없으니...

각화사 태백선원 15개월 가행정진 해제하던 날

새벽 1시 예불 입선, 밤 10시 취침, 하루 3시간의 잠, 15시간의 참선. 일종식 12명(오전 불식 3명, 오후 불식 9명), 묵언 5명...

2002년 음력 10월 보름 입제해 15개월 동안 매일 하루 15시간의 가행정진(加行精進)을 한 불화 각화사 태백선원 수좌들이 2월 5일 해제를 했다.

하루 3시간만 자고 15시간씩 가행정진을 하고난 스님들의 모습은 어떻게, 놀라운 속내에 찾은 각화사에서 스친 수좌 스님

들의 얼굴은 더없이 맑았다. 피곤한 기색은 전혀 찾을 수 없었으며 오히려 선기가 현명했다.

일반 선원의 용맹정진 기간은 보통 6-7일, 안거에 들어가도 3달이면 끝이 나지만 이곳 태백선원의 안거는 15개월 동안 진행될 셈이다. 수좌 스님들이 대중중 사를 거쳐 해제 없는 1년 단위의 정진을 결의, 동안거 기간을 더해 15개월의 용맹정진을 마친 것이다. 그러나 스님들은 3개월동안 해제 기간

을 가진 후 다시 1년 용맹정진을 계속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가행정진 결의는 처음에 32명의 스님들로 입제를 했다. 병이 생기는 등의 이유로 그동안 10여 스님들이 떠나고 20명 수좌들이 끝까지 함께 회향했다.

10-20년의 수행 이력이 지긋한 구름들이 모였지만 구름 수좌들도 힘들었던 고행이었음을 알 수 있다.

수좌 스님들을 뒷바라지해온 태백선원장 고우 스님은 “하고자 하는 의지와 행위가 일치하면 24시간 수행도 가능하지요. 고행이 아니라 좋아서 하는 것이라 버티지요. 그렇기에 발심이 중요합니다”라면서

서 “선이란 무엇을 따로 찾는게 아니라, 깨달음 대상이 따로 있다는 착각을 부수는 것이며, 본래 자기를 찾기 위한 노력도 입제와 해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며 스님들의 힘없는 정진 의지를 대견해 했다.

3개월의 해제 기간은 태백선원 수좌들에게는 더 강도 높은 수행을 하기 위해 잠시 휴식을 갖는 일종의 재충전 기간.

수좌 스님들은 해제 전날 저녁 선방에 모여 안거기간동안의 잘잘못을 지적하고 반성하는 자자(自恣)를 했고 5일 새벽, 예불을 봉행한 후 선방 문을 나섰다.

글=김두식 기자 doobi@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가행정진 회향을 축하하듯 푸짐하게 내린 서설(瑞雪)이 만행 때리는 스님들을 많이도 배운다.

2004년도 동산불교대학 · 법사대학원 신입생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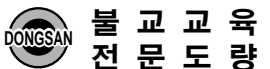
불교의 대중화와 대승불교 사상을 널리 알릴 시명강임은 포교사를 양성하기 위해, 교계대덕스님 및 교수들 초청하여 불교의 분야별 전문교육을 통하여 직정인을 위한 2년과정의 동산불교대학 제 24기생을 모집함

불교학과	근본불교, 대승불교, 화엄사상, 인도불교, 중국불교, 한국불교, 불교개론, 불교미술, 선종사상, 밀교, 교계대덕스님 18과목
한문학과	한문법(1) · 한문법(2) · 장자 · 주역 · 논어 · 금강경 · 법화경 · 화엄경 · 선가귀감
불교미술학과	① 불화1(단청), ② 선화(달마도) ③ 불화 2, ④ 불화 3(이문과 실기)
다도학과	· 한국차문화사(중국, 일본, 유럽) · 제다학(1)(2)(3) · 한국의현대차 · 다와정신
문화사학과	문화의 이해, 문예사조사, 불교문학, 문예작품감상, 미학, 불교이해, 장르별 창작 실기, 불교사상사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 및 접수
불교학과 200명 (원주·순천·통영) 한문학과 30명 다도학과 30명 문화사학과 30명	불교를 적극 선행하고자 하는 자	· 입학원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사진 3매	불교학과 · 2004년 2월 6일까지 입학금 200,000원
전형방법	강의일시 및 장소	비고	
서류 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 매주 토요일 오후 6시(영규반) ·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문예창작학과)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주건반) · 매주 수요일오후 2시(불교미술학과) · 매주 목요일 오후 7시(한문반)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다도학과)	· 동산본은 지방거주자나 출석수강이 어려운 자	

2004년 2월 접수중 (동산불교회관)

- 본 대학 사무국: TEL 02)732-1206-8 FAX 02)732-1207 (우)110-140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http://www.dongsanbud.net
- ◆ 서울: 보현각(조계사 앞) 02)733-0333 ◆ 대구: 삼영불교서림 053)425-4097
- ◆ 대전: 보문서점 042)257-0161 ◆ 광주: 불일서점 062)232-7542
- ◆ 제주: 예전수모리점 064)743-4184
- ◆ 특전사항: ● 동국대 불교대학 입학 추천 ● 상기 과정을 졸업한 자는 한국불교교단(대한불교) 포교사 고시명 거처 연행함



동산불교대학

신규강좌

불교문예창작학과 (3년과정) 2004년 3월 10일(수) 오후 2시개강

과 목	문학의 이해 · 문예사조사 · 불교문학 · 문예작품감상	· 미학1(동양미학) · 불교학 이해 · 장르별 창작실기 · 문예작품감상(학생작품)	· 미학2(서양미학) · 불교사상사 · 문예작품감상(학생작품) · 작품평가지도
지도 교수	· 김영무(극작가, 희곡작가협회 부회장) · 김홍우(동국대 예술대 학장) · 백사중(소설가, 한국문학 이사) · 신상성(소설가, 용인대 교수)	· 신세훈(시인, 한국문학 이사장) · 박진시(수필가, 한국수필가협회 이사) · 채상우(문학평론가, 동국대 국문과 출강) · 무진강스님(동산불교대학장)	

불교인문학과 (3년과정) 정규반.통선반 2004년 3월 4일(목) 오후 7시개강

과 목	· 한문법(1) 한문법(2) · 능엄경, 금강경, 법화경, 화엄경, 육조단경	· 신심법, 육조단경 · 명심보감, 장자, 주역, 논어
지도 교수	· 김형중(동대부교법사) · 송한우교수(승가대), 무진강스님, 김병조 교수	· 심재동교수(동국대), 한정섭 법사

다도학과 (3년과정) 2004년 3월 9일(화) 오후 2시개강

과 목	· 한국차문화사(중국, 일본, 유럽) · 다와정신 · 다구학 · 차와선 · 차도문헌 · 차식물학 · 차성문학 · 차종명학 · 차시강학 · 차철학도법
지도 교수	· 이기래 교당선생님 / 신세스님 / 박희준교수

불교미술학과 (3년과정) 2004년 3월 10일(수) 오후 2시개강

이론 실기	· 단청이론, 실기 · 불화이론, 실기 · 사물이론, 실기	· 기초 선구기 · 사왕초, 보살초, 여래초그리기
지도 교수	· 윤영수교수(문화재단연구원) · 김익홍교수(전 동국대)	· 법인스님(한국사불수행연구회 원장)

과 목	요일	개설경전	교수	비고 (개설과목)
불교학과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한문정전)	법화경(3)	박 종	법화경(1)(2)(3)(4), 화엄경(1)(2)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산스크리트·팔리원전)	팔천승 반야경	김형중	팔천승반야경(1)(2)
능엄경학과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능엄경 보경소(4)	송찬우	능엄경(1)(2)(3)(4)(5)(6)
근본불교학과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근본불교 (수행론 구차제정)	최봉수	근본불교(1)(2)(3) - (6)(7)(8)(9) 금강경 법화경

지원 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접수	강의일시 및 장소
① 불교대학(경규) 이수자 ② 불교양양대학(2년) 이수자	① 입학원서 1통 ② 주민등록등본 1통 ③ 자기소개서 1통 ④ 불교교양대학졸업증 1통 ⑤ 자기소개서 1통	2004년 2월 1일~ 2004년 3월 6일(토) [서류전형]	● 매주 월 · 화요일 오후 7시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3. 개강일시

- 불교학과: 2004년 3월 8일(월) 오후 7시
- 능엄경학과: 2004년 3월 9일(화) 오후 2시
- 근본불교학과: 2004년 3월 4일(목) 오후 4시

4. 입학금

입학만원

5. 졸업자격

3년 과정의 부처님 법음이 가득한 경전(매주 2강좌)을 이수한 분에게 졸업장을 수여함.

6. 원서문의 교부·접수

본 연구원 사무국: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 02)732-1206-8 / FAX 02)732-1207 인터넷 홈페이지 www.dongsanbud.net



법사교육 전문도량 동산불교(경전)대학원